

‘59타 불운의 사나이’ 해드윈, 드디어 웃다

벌스파챔피언십 14언더 270타…PGA 첫 우승

애덤 해드윈이 13일(한국시간) 이니스브룩 골프장에서 열린 벌스파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71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59타를 치고도 우승을 하지 못해 ‘불운의 사나이’라 불렸던 아쉬움도 흩날렸다.

팬하버(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커리어빌더 59타 치고도 우승 놓쳐
PGA 78경기만에 ‘행운의 사나이’

꿈의 59타를 치고도 우승하지 못해 ‘불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애덤 해드윈(캐나다)이 마침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해드윈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하버 이니스브룩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벌스파챔피언십(총상금 63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13언더파 271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만 29세 4개월 10일의 나이로 이룬 첫 우승이다. 우승상금은 113만4000달러.

해드윈은 1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라퀀타의 PGA 웨스트 골프장에서 열린 커리어빌더 챌린지 3라운드에서 13언더파 59타를 치며 주목받았다. 이에 앞서 하와이에서 열린 소니 오픈에서 저스틴 토마스가 59타를 친 뒤 9일 만에 작성된 기록이라 더 큰 관심을 샀다. 그러나 해드윈은 끝까지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그 바람에 59타를 치

고도 우승하지 못한 4번째(칩 벡·폴 고이도스·짐 퓨릭 2번) 선수가 되고 말았다.

해드윈은 이후 우승권에 다가서지 못했다. 파머스인슈어런스오픈 공동 49위, 피닉스오픈 공동 12위, AT&T페블비치프로암 공동 39위, 제네시스오픈 공동 34위에 머물렀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라운드에서 64타를 치며 우승경쟁에 뛰어든 해드윈은 3라운드에서도 4언더파(67타)를 치며 우승에 다가섰다. 마지막 날 마지막 18홀까지 캔틀레이와 접전을 펼친 그는 상대의 실수를 틈 타 생애 첫 우승의 감

격을 맛봤다. 공동선두였던 캔틀레이가 마지막 18번홀에서 보기를 범함에 따라 우승에 성공했다. 불운의 사나이에서 행운의 사나이가 되는 순간이었다. 캐나다 출신으로 매진지투어(2승)와 웰닷컴투어(2승)에서 4차례 우승을 경험한 뒤 PGA 투어로 입성한 해드윈은 78번째 경기 만에 꿈에 그리던 우승트로피를 뽐내 들어올렸다.

한국선수들은 부진했다.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한 안병훈(26)은 이날 2오버파 73타를 적어내며 합계 1오버파 285타, 공동 49위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지자체 첫 스포츠통합브랜드 ‘SC고양’ BI·유니폼 공개

고양시(시장 최성)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스포츠통합브랜드 ‘SC(Sporting Club) Goyang’의 BI와 유니폼이 13일 공개됐다. BI는 유니폼 등 각종 스포츠의류 및 용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유니폼은 고양시 엘리트·생활체육인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4인천아시아인게임 세팍타크로 은메달 박현근, 2014김천국제테니스대회 은메달 김해성, 2010밴쿠버동계 올림픽 남자쇼트트랙 은메달 곽윤기, 2008베이징올림픽 및 2012런던올림픽 여자태권도 금메달 황정선(왼쪽부터)이 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고양시



남녀쇼트트랙 서이라(사신)와 심석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직행 티켓을 따냈다. 둘은 1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막을 내린 2017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어 평창 출전권을 얻었다. 로테르담(네덜란드) | AP뉴시스

서이라, 男쇼트트랙선수권 종합우승

종합3위 심석희와 평창올림픽 직행티켓

남녀쇼트트랙대표팀 서이라(25·화성시청)와 심석희(20·한국체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직행티켓을 손에 쥐었다. 서이라는 1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막을 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랭킹포인트 81점을 획득해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남자 1500m와 500m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한 그는 이날도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쓸어 담으며 역대 우승을 일궈냈다.

서이라는 2016~2017시즌 직전 훈련을 하다 발목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해 월드컵 1, 2차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2017차포동계아시아인게임에서 1000m 금메달을 따며 상승세를 탔고, 시즌 중 가장 큰 대회로 꼽히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서며 남자쇼트트랙대표팀의 자존심을 살렸다.

여자대표팀 심석희는 전날 1500m 동메달과 3000m 슈퍼파이널 금메달로 랭킹포인트 52점을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서이라와 심석희는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순위 3위 이내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은 1명은 자동으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출전선수 선발 기준’에 따라 대표팀 선발전을 치르지 않고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비거리는 남자선수들의 자존심” 장타 4인방, 올해도 뜨거운 대결

〈김건하·허인회·김태훈·김봉섭〉

개막 한달여 앞둔 KPGA 장타대결 예고

남자골퍼들의 화끈한 장타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뽕’ 뚫린다. 장타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장비의 고성능화와 스윙 테크닉의 향상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가공할 파괴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화려함으로 주목받는 장타는 이제 우승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세계랭킹 1위로 등극한 더스턴 존슨(미국)은 폭발적 장타로 유명하다. 그가 WGC 맥시코챔피언십 우승 당시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321.5야드에 이르렀다. 최장 드라이브샷 거리는 393야드까지 나왔다. 장타를 칠수록 정확성이 떨어진다. 단점을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의 장타자들은 멀리 때려놓고 짧은 클럽으로 그리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우승을 쓸어들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장타를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에서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타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선수는 김태훈(32)이다. 2013시즌 평균 301야드를 때려 장타왕으로 등극했다. 이후 조금씩 거리를 줄여 장타자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올 시즌 장타를 재무장하면서 화끈함으로 승부를 걸 참이다. 김태훈은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은 언제나 자신 있었지만, 한동안 드라이브샷의 방향성이 좋지 않아 기복이 심해졌다. 그로 인해 거리에 큰 욕심을 내지 않게 됐다”며 “다행히도 최근 드라이브샷의 거리와 정확도가 잡히기 시작했다. 우승과 함께 올 시즌 장타왕을 노려보겠다”고 다짐했다.

‘필드의 허세남’ 허인회(30)도 장타하면



왼쪽부터 2016년 장타왕 김건하, 2014년 장타왕 허인회, 2013년 장타왕 김태훈, 2012년 장타왕 김봉섭. 사진제공 | KPGA

빼놓을 수 없다. 독특한 경기 스타일로 주목 받고 있는 그는 2014년 장타왕(294.7야드) 출신이다. 허인회는 “장타의 이점은 더 가까운 지점에서 그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만을 고집하다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수라면 장타를 원하게 된다. 그만큼 장타의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며 “이번 시즌 장타를 통해 프로 데뷔 이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승의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봉섭(34)은 역대 KPGA 코리아투어 최고의 거포였다. 축구선수 출신답게 탄탄한 하체를 기반으로 장타를 때려내는 그는 2012년 평균 309야드를 날려 장타왕이 됐다. KPGA 코리아투어 역대 1위 기록이다.

그의 허벅지 둘레는 무려 27인치로, 상인의 허리 사이즈와 맞먹는다. 김봉섭은 “장타가 타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올 시즌 더 화끈한 장타를 보여주고 싶다. 기대해도 좋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장타왕으로 등극한 김건하(25)는 올해 더욱 강력한 장타를 위해 특별한 전지훈련까지 소화하고 돌아왔다. 미국전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거리는 남자선수들의 자존심이다”며 “시원한 장타를 앞세워 데뷔 첫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KPGA 코리아투어의 개막(동부화재프로미오픈·4월 20~23일)까지는 1개월여가 남았다. 자존심을 건 남자골퍼들의 화끈한 장타 대결은 또 다른 볼거리다. 주영로 기자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2016~2017 여자프로농구 PO 대전표	
챔피언결정전	
1차전 : 16일 19시 (아산)	PO
2차전 : 18일 17시 (아산)	
3차전 : 20일 19시 (용인)	
※4차전 : 22일 19시 (용인)	
※5차전 : 24일 19시 (아산)	
우리는행 정규리그 1위 (33승2패 · 0.943)	삼성생명 정규리그 2위 (18승17패 · 0.514)
	KB스타즈 정규리그 3위 (14승21패 · 0.400)

※는 필요시 개최

NBA				〈13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보스턴	42	25	1	클리블랜드	43	22	1	워싱턴	41	24
2	토론토	38	28	2	인디애나	34	32	2	애틀랜타	37	29
3	뉴욕	26	41	3	디트로이트	33	33	3	마이애미	32	35
4	필라델피아	24	42	4	밀워키	32	33	4	샬럿	29	37
5	브루클린	12	53	5	사카고	31	35	5	올랜도	24	43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대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41	25	1	골든스테이트	52	14	1	샌안토니오	51	14
2	오클라호마	37	29	2	LAC	40	26	2	휴스턴	46	21
3	덴버	31	35	3	세크라멘토	25	41	3	멤피스	36	30
4	포틀랜드	29	36	4	피닉스	22	45	4	댈러스	28	37
5	미네소타	27	38	5	LAL	20	46	5	뉴올리언즈	26	40

•경기결과	
보스턴 100 - 80 사카고	휴스턴 117 - 112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118 - 116 LAL	브루클린 120 - 112 뉴욕
포틀랜드 110 - 101 피닉스	인디애나 102 - 98 마이애미

해외축구		〈13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리버풀 2 - 1 번리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데포르티보 2 - 1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2 - 1 베티스
빌바오 2 - 0 레알소시에다드	비야레알 1 - 0 셀타비고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샬케04 3 - 0 아우크스부르크	함부르크 2 - 1 뮌헨글라트바흐

•세리에A 경기결과	
AS로마 3 - 0 팔레르모	우디네세 3 - 1 페스카라
피오렌티나 1 - 0 칼리아리	인터밀란 7 - 1 아탈란타
나폴리 3 - 0 코토네	키예보 4 - 0 엠폴리
볼로냐 1 - 0 사수올로	

•르상피오나 경기결과	
생테티엔 2 - 2 매스	올림피크리옹 4 - 0 툴루즈
파리생제르맹 2 - 1 로리앙	

•에레디비지예 경기결과	
빌렘 2 - 0 즈볼레	아약스 3 - 0 트벤테
페예노르트 5 - 2 AZ	로다JC 3 - 1 그로닝겐

GOLF		〈13일〉	
•PGA TOP10			
발스파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① 해드윈(캐나다)	-14	② 캔틀레이(미국)	-13
③ 보렐리(미국)	-12	④ 파나우(미국)	-11
⑤ 브라이언(미국)	-8	⑥ 스텐슨(스웨덴)	-8
⑦ 해(미국)	-7	⑧ 안병훈(한국)	-6

아마추어 경기결과		〈13일〉	
•농구		●2016-2017 KBL D리그 2차(고양보조)	

●플레이오프 4강=전자랜드 76-72 모비스, 삼성 93-86 오리온

●배드민턴 ●2017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영국 버밍엄)

●여자 복식 결승전=장예나, 이소희(한국) 2-0 윌, 페데르센(덴마크)

●2017 독일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독일 베를린)

●여자 복식 결승전=김민지, 성아영(한국) 2-0 린, 나츠(일본)

●빙상 ●2017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네덜란드 로테르담)

●1000m 남자부 결승전=(금) 서이라(한국), ② 류사오양(헝가리), ③ 아를

랭(캐나다) ●3000m 슈퍼파이널 남자부 결승전=① 크네호트(네덜란드),

(은) 서이라(한국), ③ 안현수(러시아) ●3000m 슈퍼파이널 여자부 결승전

=(금) 심석희(한국), (은) 김지유(한국), ③ 크리스티(영국) ●남자부 종합

순위=① 서이라(한국), ② 크네호트(네덜란드), ③ 지라드(캐나다) ●여자부

종합 순위=① 크리스티(영국), ② 생젤레(캐나다), ③ 심석희(한국)

●2016-2017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노르웨이 스타방에르)

●매스스타트 남자부 결승전=(금) 이승환(한국), ② 베르호스

마(네덜란드), ③ 스웬스(벨기에) ●매스스타트 여자부 결승전=① 소우텐(네

덜란드), (은) 김보름(한국), ③ 톨로브리자다(이탈리아)

경기 예고	
프로야구	

2017 KBO 리그 시범경기	
LG	〈대전〉
KT	〈대구〉
삼성	〈사직〉
롯데	〈잠실〉

프로농구		〈14일〉	
2016-2017 KCC 남자프로농구			

전자랜드		〈인천삼상실내〉	
LG			

프로배구		〈14일〉	
2016-2017 NH농협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안산산록수〉	
대한항공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		〈김천실내〉	

2016-2017 NH농협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		〈김천실내〉	

아마추어 경기예고		〈14일〉	
●2017 AFC 챔피언스리그			

●E조 예선전 3차전=울산-무안탈(울산, 오후7시30분) ●G조 예선전 3차

전=이스트SC-수원(홍콩 몽콕스타디움, 오후8시)

●농구 ●2016-2017 KBL D리그 2차(고양보조)

●2017 대학농구리그(광주, 오후3시)

●여자부=광주대-수원대

●제 54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농구연맹전 영광대회(영광스포

티움 국민체육센터) ●남자 고등부 A조=군산고-전주고(오후12시), 무

릉고-삼일상고(오후1시20분) ●남자 고등부 B조=광주고-계성고(오후2시

40분), 양정고-송도고(오후4시) ●남자 고등부 C조=광산정선고-마산고(오

후5시20분), 쌍용고-상산정전고(오후6시40분) ●남자 고등부 D조=동아고-

안양고(오후1시20분), 제물포고-대전고(오후2시40분) ●남자 중등부 A조=

화봉중-효계중(오후1시20분), 광신중-평원중(오후2시40분) ●남자 중등부

B조=군산중-주성중(오후4시)

오늘의 토토		〈14일〉	
2017년 세계 남자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아			

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인도 뉴델리)

●2017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핸드볼 ●제 16회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수원)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오후2시15분), 일본-홍콩(오후4시30분)

●복싱 ●2017년 전국 종합 신인 복싱선수권대회(충남 청

양군민체육관, 오후12시)

오늘의 토토		〈14일〉	
2017년 세계 남자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아			

2017년 세계 남자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아		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인도 뉴델리)	
●2017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핸드볼		●제 16회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수원)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오후2시15분), 일본-홍콩(오후4시30분)			

복싱		●2017년 전국 종합 신인 복싱선수권대회(충남 청	
양군민체육관, 오후12시)			

오늘의 토토		〈14일〉	
2017년 세계 남자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아			

2017년 세계 남자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대회 아		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인도 뉴델리)	
●2017년 전국 종합 테니스대회(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핸드볼		●제 16회 아시아 여자 선수권대회(수원)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오후2시15분), 일본-홍콩(오후4시30분)			

복싱		●2017년 전국 종합 신인 복싱선수권대회(충남 청	
양군민체육관, 오후12시)			